

美術 작품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

無痛拔齒

待合室에서

金星齒科醫院

金圭燾

Im Wartezimmer des Zahnarztes

Kleinmichel(1888作)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Julius Kleinmichel (1846~1900)이 1888년에 그린 펜화이다.

作品年度는 比較的 새로우나 19世紀 齒科醫의 待合室 風景을 재미있게 描寫했다. 診療室은 幕으로 드리웠기 때문에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없어 더욱 興味를 느끼게 한다.

기다리고 있는 患者들 全部의 人相은 찌프린 狀態에 順番을 부르는 助手의 상냥스러운 얼굴이 매우 對照的이라 하겠다.



연구와
精進을
指向하는

寶城合金
寶城齒科技工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 53-3411·54-9018

代表 朴允三